국립중앙도서관 북 큐레이션

인문학과 AI

서로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2026. 8. 25.(화) ~ 10. 25.(일)

"성찰하는 질문, 이해하고자 하는 기술"

인공지능(人工知能, artificial intelligence 일명 AI)은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정보의 접근성이
극대화되고 지식의 생산과 활용 방식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인문학(人文學, humanities)의 역할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 가치와 윤리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온 인문학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바라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문학과 AI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하며
상호보완적인 존재입니다. 인문학은 언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성찰을 정립해 왔고, AI는 언어를
학습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의 총합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지금까지의 인간,
즉 우리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온 시선이며
AI는 미래의 지향점을 찾는 새로운 시선입니다.

그렇다면 성찰과 이해의 두 시선을
도서관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AI, 인문학에 길을 묻다

최재운 지음
데이원 / 2025

AI 발전사와 철학사의 교차점을 연결하여 기술의 미래와 방향을 인문학에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인문학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류가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설계와 운용에 필요한 윤리적 실마리를 철학적 성찰을 통해 제시하며 AI 기술의 발전과 인문학적 가치의 공존에 대한 고민점을 제안한다.

AI시대에 인문학은 무엇인가

김형석 지음
위더북 / 2026

인문학이 어떤 학문인지, 왜 인문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한지 설명한다. 사회를 구성하고 사람답게 사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양성을 함양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며 AI 시대의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인문학이 어떻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기계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

마크 코켈버그, 데이비드 J. 건컬 지음 ; 신동숙 옮김
생각이음 / 2026

생성형 AI의 원리부터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사회적 쟁점까지 단계적으로 풀어낸다. AI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언어 환경을 인간의 사고와 연결된 대상으로 바라보며, 인문학적·철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고민하게 한다. 체계적인 설명과 유기적인 구성은 AI 시대를 이해하는 깊이 있는 시선을 제공한다.

인간 지능의 역사

이은수 지음
문학동네 / 2025

인류가 발견하고, 수집하고, 읽고 쓰며 소통해 온 과정을 따라가며 인간 지능과 지식의 확장을 폭넓게 살펴본다. 철학과 과학,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적 시선으로 인간 지성의 흐름을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AI시대 인간과 기술의 새로운 관계를 탐색한다. AI 시대 인간지능의 의미와 공생의 가능성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안한다.

어느날 미래가 도착했다

우숙영 지음
창비 / 2025

우리의 일상과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AI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술의 명암을 조명하고 윤리적 부작용을 경고하며, AI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성의 가치를 살펴본다. 성큼 다가온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나 자신에 대한 앎, 인간다움에 대해 탐구하고 AI 시대 인문학적 사고의 가치를 고민한다.

AI 훈민정음

정유진, 유영준 지음
메타세종 / 2025

AI를 하나의 언어 혁명으로 바라보며, 기술의 원리와 변화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낸다. 훈민정음이 문자 문해력을 열었던 것처럼 AI 시대의 새로운 정보 문해력을 살펴보고, 기술과 함께 살아갈 인간의 태도와 질문을 고민하게 한다. 장마다 더해진 세종대왕과 철학자들의 대화는 읽는 흐름을 환기하며, 핵심 주제를 선명하게 전한다.

인간적 AI를 위하여

브라이언 크리스천 지음 ; 이한음 옮김
SIGONGSA / 2025

AI 윤리와 관련된 학문적인 고민과 시도, 이론적 접근과 다양한 실험, 실제 적용 사례 등에 대해 망라한다. 인터뷰, 발췌, 인용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AI 발전사를 분석하며 AI 발전의 이면에서 AI 설계 고충, 데이터 학습 방법, 윤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 등을 담고 있다.

AI 빅뱅

김재인 지음
동아시아 / 2023

AI의 폭발적인 발전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설명하며 시대의 흐름을 통찰하고 AI 발전을 위해 오히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균형적 태도 함양과 인문학적 생태계 구축과 교육의 대전환을 요구하며 기초 지식의 중요성과 언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AI가 나보다 일을 잘할 때

김대식, 김혜연 지음
창비 / 2026

카이스트 교수와 생성형 AI 기반 안무가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AI가 가져올 변화와 인간의 역할을 함께 살펴본다. 인간의 경험과 감성, 자기탐색, 질문하는 힘의 가치를 되짚으며, 기술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생각해본다.

낯섦과 공존

김태원 지음
휴먼큐브 / 2025

급격하게 발전한 AI 기술이 가져온 낯선 변화를 극복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예술 및 산업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기술을 훑어보며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술의 변화 속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AI가 내려온다

강우규, 김바로 지음
사이언스북스 / 2022

AI 기술은 인문학을 더 깊고 폭넓게 탐구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책은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고전문학의 인문학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기술이 인문학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준다. AI가 인문학 연구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MIT TECHNOLOGY REVIEW KOREA

VOLUME 9, JUL/AUG 2023

DMK GLOBAL / 2022 ~

"AI가 인문학 연구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에 쏟는 관심 즉 자기애 덕분이다"

애덤스미스
국부론

"들려주소서, 무사 여신이여, 신성한 도시 트로이아를 멸망시킨 후 오랫동안 방랑한 계책 많은 남자에 대해"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지그문트 프로이트
꿈의 해석

"꿈의 해석은 정신의 무의식적 활동에 대한 지식으로 이르는 왕도이다"

애덤스미스
도덕감정론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해도, 그의 본성 속에는 분명 몇 가지 원리가 자리하고 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군주가 만약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증오를 피하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자유만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비극은 양념을 친 온갖 언어를 곳곳에 배치해, 낭송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를 통해, 흘릉하고 위대한 하나의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그 감정의 정화 (카타르시스)를 이루어내는 방식이다"

논어
"아침에 도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공자

국립중앙도서관 북 큐레이션

인문학과 AI

서로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2026. 8. 25.(화) ~ 10. 25.(일)

"도서관에서 서로 마주볼 때"

도서관은 언제나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회를 이어왔습니다. 서가에 쌓인 방대한 지식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축적된 지식은 다음 세대에
전승되어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지식과 정보를 얻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지만 도서관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둘의 교차점을 찾는
북 큐레이션을 통해 인문학과 AI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장서를 바탕으로 철학, 문학,
역사 등 인문학 고전과 AI를 주제로 한
도서를 함께 소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이어 온 인문학과 지금까지
인간이 축적해 온 언어와 지식을 학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AI.

이번 전시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시선을 따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